

8. 목관아지(牧官衙址) 복원과 몇 가지 소견³⁶⁾

제주목관아지 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포정사(布政司) 문루가 복원된 데 이어 지난 1일 동헌(東軒)을 비롯한 다섯 채의 상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목사가 정사를 보던 동헌[연희각(延曦閣)]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초기의 안무사영(按撫使營)이었던 홍화각(弘化閣), 우련당(友蓮堂), 굴림당(橘林堂), 영주협당(瀛洲協堂)³⁷⁾ 등 다섯 채의 옛 건물이 올해 안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36) 『한라일보』(삼각봉), 2001. 09. 27 (목), 상임논설고문.

37) 신문에는 ‘c州協堂’이라 되어 있다. 편자가 ‘瀛洲協堂’으로 바로 잡음.

역사적 의미가 큰 사업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가운데도 가장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필자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제창했던 사람으로 누구 못지않게 감동이 크고 사업 결과에 조바심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의 복원은³⁸⁾ 옛 유적이 제 자리에 그대로 복원되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제기돼 왔으며 지금도 깊은 관심 속에 사업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그동안 여러 원로들로부터 들어온 이야기와 또 필자 나름으로 조사해 본 내용들을 토대로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리해 둘 필요를 느낀다. 그것이 복원 결과와 역사 사실 인식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복원 사업을 앞두고 제대 박물관에 용역을 맡겨 지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에 걸쳐 4차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의 복원은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지문위원³⁹⁾들의 의견이 일부 수용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목관아지의 건물 유지라고 할 것이다. 발굴조사는 그 유구가 보존돼 있는 상태에서 의미가 있는 법이다. 그것이 파괴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38) 신문에는 ‘복원을’ 이라 되어 있다. 필자가 ‘복원은’ 으로 바로 잡음.

39) 신문에는 ‘자문의원’ 이라 되어 있다. 필자가 ‘자문위원’ 으로 바로 잡음.

건물 구조 이해 안가

제주목관아지의 경우 고려시대 이후만 해도 천년의 긴 시대에 걸쳐 무수한 관아건물이 명멸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이후만 해도 그 한정된 공간 속에서 수백 채의 건물이 건립되고 확장되고 이전되고 철거되고 다시 말하면 무수한 유구의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유구 하나하나가 모두 밝혀졌다면 참으로 귀신이 탄복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18세기 초 이형상(李衡祥) 목사 시대의 건물을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홍화각의 유지라고 하겠다. 흔히 홍화각을 한 채의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고득중(高得宗)의 「홍화각기(弘化閣記)」를 보면 홍화각은 모두 10여 채(206間)⁴⁰⁾로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중심 건물로 볼 수 있는 편전당(便殿堂)은 옛 법원 옥사가 있던 바로 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복원되는 자리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호적이고 자리로 추정된다. 연희각 자리는 이번에 복원되는 자리가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월대와 기단석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물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 기록들을 검토해보면 와선각(臥仙閣) 등 별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건물 구조도 단순 일자형(一字形) 건물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분명한 것은 대청마루는 동쪽 뜰로 대면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몸통은 남향을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0) 신문에는 '間' 이라 되어 있다. 필자가 '間' 으로 바로 잡음.

이번에 복원되는 건물 가운데 영주협당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탐라방영총람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한때 호칭되었던 건물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있었던 주요 관아는 모두 탐라지나 증보탐라지의 공해(公廨)⁴¹⁾ 조에 나타나고 있다. 관아 건물들이 잘 정리되어 나타나는 지리지⁴²⁾ 등에도 등재되지 않는 불투명한 건물이 왜 하필이면 그 허구 많은 건물 가운데 선택되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다. 궁색한 설명처럼 관아지 동쪽 공간을 메우는 처리 시설이 필요했다면 애매헌(愛梅軒) · 공제당(共濟堂) · 세병헌(洗兵軒) · 영군관청(營軍官廳) 등 전통 있는 건물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백번 옳았다고 생각된다.

만고의 역사 현장

끝으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복원 결과를 보는 도민들의 눈이다. 포정사문이 준공되자 왜 이리 낮고 이리 왜소하냐는 것이었다. 이번 다섯 채의 상량식을 보는 눈도 거의 비슷했다. 실제로 그렇게 왜소했겠냐는 생각이었고 그렇다하더라도 복원하는 마당인데 좀 키우면 어떠냐는 생각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 당사자들은 원형 그대로라야 한다는 논리다. 신문에는 ‘~한다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다. 필자가 ‘~한다는 논리다. 그것은~’ 이라 바로 잡음.

그것은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복원에 즈

41) 신문에는 ‘公w’ 이라 되어 있다. 필자가 ‘公廨’ 로 바로 잡음.

42) 신문에는 ‘지리’ 라고 되어 있다. 필자가 ‘지리지’ 로 바로 잡음.

음하여 원형을 키웠던 예는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 차이가 있지만 이참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관아지 복원은 신문에는 ‘복원을’ 이라 되어 있다. 필자가 ‘복원은’ 으로 바로 잡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이만한 사업이 이루어진 것만도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모든 복원사업이 역사 사실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목관아지는 복원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일회 통과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두고두고 제주의 역사를 증언해 갈 만고의 역사 현장이다. 거둬거둬 검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꾸준히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